



헬기 수상 인명 구조훈련

피서철을 맞아 광주시소방안전본부 대원들이 10일 오전 광주댐에서 헬기를 이용한 수상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소방 구조대원 120여명이 참가한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고속 양승현 기사 선행 화재

“노인승객 갑작스런 차내 용변 내부모 모시듯 신속처리 감동”

“승객을 부모 모시듯 대하는 승무원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금호고속 홈페이지 ‘고객님 말씀’ 코너에 훈훈한 사례가 올라왔다. 한국도로공사 영광영업소 소속 윤문화씨가 올린 글로, 금호고속 양승현(50·사진) 승무원의 선행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다.

윤씨의 글에 따르면 윤씨가 근무하는 영광톨게이트 사무실로 열마 전 한 고속버스 승무원이 연로한 노인을 부축하고 들어왔다. 이승무원은 버스 안에서 어르신이 용변을 봤는데, 자신이 처리하려고 도움을 요청했다. 윤씨는 악취가 심했지만 부모님을 대하듯 어르신을 모시는 승무원을 보고 감동을 받아 칭찬의 글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금호고속이 확인한 결과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금호



악취 속 승객들 양해

화장실서 손수 씻기고

옷·신발 구해 입혀 줘

고속 차내에서 70대 남성이 용변을 봤다. 악취가 버스에 풍기자 양승무원은 다른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인근의 영광톨게이트

로 차량을 이동시켰다. 양 승무원은 당황한 노인을 데리고 톨게이트 사무실을 찾아간 다음, 화장실에서 이 남성의 몸을 손수 씻긴 뒤 여벌의 옷과 슬리퍼까지 구해 입혔다.

영광톨게이트 직원들은 “악취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수 몸을 씻겨드리더니 몸은 편찮으신지 계속 어르신을 걱정했다”며 “현장에서 승무원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꼈고, 선행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양 승무원은 “버스에 탄 어르신들도 다 저희 부모님이 아니겠느냐”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양 승무원은 지난 1993년 입사해 20년째 고속버스를 운행 중이다. 무사고 기록도 17년에 달해 안전운행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장마 북상…구례 34.3도 불볕더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당분간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구례가 낮 최고 34.3도를 비롯, 화순 33.6도, 광주 31.3도 등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물러난 자리

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이번 주말까지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인 14일과 15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라 전망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초등생 학부모 57%

“최고 담임은 멘토형 교사”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5~6명은 최고의 담임교사 유형으로 학생들에 대한 배려심과 포용심이 큰 ‘멘토형’을 꼽았다. 또 8~9명은 성적보다는 인성을 길러주는 교사가 좋다고 밝혔지만, 그 비중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크게 떨어졌다.

10일 영어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어교육커뮤니티 ‘윤스맙’의 초등생 학부모 회원

4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1%가 멘토형 교사가 가장 좋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과 비전을 설계하는 ‘설계사형’(21.8%), 학생·학부모와의 소통능력이 뛰어난 ‘커뮤니케이션형’(15.6%), 내신·입시정보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설무형’(4.0%), 전공·교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학자형’(1.5%) 순이었다.

성적 위주의 현실적인 교육을 주구하는 교사와 이상적인 교육을 지향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 중에는 후자에 대한 선호도가 86.7%로 압도적이었다.

/연합뉴스

日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첫 판결

서울고법 “구 일본제철, 4명에 4억 지급하라”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당시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주)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8년 만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됐다. 일부 피해자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내 2003년 패소 판

결이 확정된 것까지 감안하면 16년 만의 승소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돼 고난을 겪은 피해자들이 잇따라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점소를 한우라 속인

무안 식당 주인 구속

값싼 국내산 젖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0일 값싼 국내산 젖소고기 20kg량을 값비싼 한우(육우)고기로 속여 판매한 무안군 모 식육식당 업주 S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식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S씨 외에 고기 종류를 속여 판매한 모두 14곳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구속된 S씨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육질이 떨어져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젖소고기를 한우 생고기, 비빔밥용, 꽂침등구이용 등으로 둔갑시켜 6억 7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elysia.co.kr

“축복 받은 집”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
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현저	디너	현저	디너
성인	23,000	27,000	30,000	33,000
조등학생	12,000	14,000	15,000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9,000	10,000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엘리시아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되신 분들을 위해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범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예경사회화 / 축하화분 / 꽃바구니 / 꽃다발
인터넷주문,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062)513-4000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원비

점심특선

참조기탕

12,000원 A코스 40,000원

생우탕탕

12,000원 B코스 50,000원

대구탕

15,000원 C코스 60,000원

생선초밥

12,000원 (1인기준 2인 이상)

특초밥

15,000원

생선구이

15,000원

굴비정식

20,000원

나고야정식

25,000원

점심 가족특선

4인 한상차림 100,000원

(토요일, 공휴일에 한함)

